

## 이가림 시의 분석적 연구

유성호\*

### 〈차 례〉

1. 들어가며
2. 초기시에 나타난 절제와 균형의 감각
3. 생활 감각의 구체성과 소통의 심미적 순간성
4. 인간 존재의 가장 근원적인 심층에 대한 응시
5. 언어와 현실과 우주가 길항적으로 전개된 세계

### [국문초록]

이가림 시는 낭만적 꿈과 고전적 시선의 협주로 이루어져 있어서, 어느 한쪽으로의 경사를 제어하는 균형 감각 아래서 씩어지는 일관성을 보여준다. 그는 한 편 한 편의 밀도를 최대한 높여 자신만의 견고한 표지(標識)를 그려낸 몇몇 가작들만으로도 충분한 자기 완결성을 가지는 시인이다. 첫 시집 『빙하기』는 청년기의 침묵과 사색의 깊이를 선명하게 일러주는데, 여기서 그는 분노와 상처, 눈물과 공포를 단단하게 함유한 채 그 특유의 낭만적 꿈을 표상한다. 하지만 그는 천상과 지상, 영원과 순간, 낭만적 꿈과 고전적 시선을 동시에 욕망하는 모습을 한결같이 보여준다. 이러한 균형 감각이 그로 하여금 차가운 현실을 증언하고 역사의 마디를 복원하는 투시력을 견지하게끔 한 것이다. 그의 후기 시편은 인간의 의지적 측면을 중심으로 하여, 인간 존재의 가장 근원적인 심층을 응시한다. 그러한 절제와 균형이 그의 시학을 높은 품과 격으로 이끌어 올린 것이다. 결국 이가림 시의 문학사적 의의는 우수와 그림움 같은 낭만성과 현실 투시와 절제의 방법론에 따르는 고전적 시선의 균형을 통해 한국 시의 미학적 위상을 한 차원 높인 데 있다 할 것이다.

[주제어] 낭만성, 고전적 시선, 현실 투시, 절제, 균형 감각

\* 한양대 국문과 교수

## 1. 들어가며

이가림(李嘉林, 본명은 이계진(李癸陳), 1943~2015)의 시편을 일괄하여 어떤 사조적 범주로 명명하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다. 그의 시편들은 서구 문예사조가 그려내는 이념이나 방법의 동선(動線)과 고스란히 겹쳐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쩌면 그 각각의 범주들이 속 깊은 곳에서 한데 만나고 한꺼번에 소용돌이치는 내포적 역동성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 그만큼 이가림 시는 그 외연이 풍요롭고, 이념과 방법에서 매우 복합적인 세계라고 할 수 있다. 말하자면 그의 시편들은 낭만적 꿈과 고전적 시선의 협주로 이루어져 있어서, 어느 한쪽으로는 경사를 스스로 제어하는 놀라운 균형 감각 아래서 씩어지는 일관성을 보여준다. 물론 그는 엇비슷한 작품들의 평면적 반복을 능사로 삼는 시인들과 그 위상이 전혀 다른 시인이다. 말하자면 그는 한 편 한 편의 시편의 밀도를 최대한 높여, 자신만의 견고한 표지(標識)를 그려낸 몇몇 가작들만으로도 충분한 자기 완결성을 가지는 시인이다. 이러한 이가림 시를 귀납적으로 조감해보려는 이 글은, 우리 시단에서 흔히 과작(寡作)의 대명사로 불렸던 그를 대상으로 하는지라, 대표 시편을 중추로 하여 그의 시세계를 충실하게 개관하면서 그가 남긴 고유한 미학적 충동과 지향을 탐색해보려고 한다.

## 2. 초기시에 나타난 절제와 균형의 감각

이가림의 첫 시집 『빙하기(氷河期)』(민음사, 1973)는, 그의 등단이 1966년 동아일보 신춘문예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청년기를 갈무리하는 보폭으로서는 매우 느리고 느린 것이었다. 말하자면 첫 걸음부터 이가림은 우리 시단 특유의 속도전과는 아예 무연한 자리에서 자신만의 결빙의 시간을 오롯이 축적해왔던 것이다. ‘빙하기’라는 상징적 제목은, 이러한 그의 청년기의 견고한 침묵과 사색의 깊이를 선명하게 일러준다. 이러한 견고함의 깊이를 잘 보여주는 작품으로 우리는, 언제나 그의 시력 맨 앞에 놓이게 될, 1964년 경향신문 신춘문예 가작으로 뽑힌 바 있는, 그의 나이 스물한 살 때 씩어진, 「돌의 言語」라는 시편을 선뜻 거론해볼 수 있을 것이다.

무서운 폭풍 속에 던져진 스스로의 무게를 미칠 듯이, 괴로운 極光을 향하여 소리치다 소리치다 굳어간 形姿. 어느 날엔가 숨가쁜 노여움을 잔인하게 모으고 핏멍을 영긴 자기를 참으로 凝視해보려는가. 虐殺하려는가. 아아 逃亡을 치려는가.

-「돌의 言語」중에서

견고하고 완강한 침묵 속에 깃들여 있는 ‘돌의 언어’는, 폭풍 속에 던져진 스스로의 무게를 몸 속 깊이 안고 있다. 그렇게 폭풍의 무서움 속에서 굳어져간 모습 속에는 젊은 날의 분노와 상처와 낭만적 도피행의 욕망이 모두 담겨 있다. 사물들의 표면을 뚫고 들어가 그 안에 녹아 있는 기억의 심층을 찾아내고 표현하는 이가림 시편의 오랜 성향은, 이렇게 자신의 첫 작품으로부터 그 단단한 원형질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이 시편은, 사물들을 새롭게 바라보면서 자신의 상처 속에 도사리고 있는 잠재적 힘의 가능성에 대해서 깊이 주목하는 이가림 시학의 또 한 축을 선명하게 보여주기도 한다. 바로 이 점이 이가림 시학으로 하여금 아픈 이야기를 담게 하면서도, 사랑의 시학으로 나아가게끔 했던 가장 직접적인 근인(根因)이 된다.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는 합리적 이성으로는 도무지 착안할 수 없는 상처나 운명에 대해 이야기할 순간들이 많이 있다. 그때 서정시가 우선적으로 포착하는 것은, 역설적이게도 가장 친숙한 ‘기억’의 미세한 결들이다. 이가림은 ‘돌의 언어’를 통해 기억의 원형질을 꺼내면서, “바람이 불 때마다 뜨겁게 우는 것/두려움 없이 하늘을 쳐다보는 것”(『돌』)의 자세를 돌올하게 드러낸다. 그렇게 분노와 상처, 눈물과 공포를 단단하게 함유한 채 이가림 시편은 그 특유의 낭만적 꿈을 표상하게 된 것이다.

무엇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동그라니

램프가 되어 공중에 걸려 있다.

걸려 있는 램프는 지지지 서러운 소리를 내어

藍빛 슬픔처럼 타고 있다.

가난한 고독의 둘레에

애인들은 등우리를 짓지 않고

한 마리 새도 날아들지 않는다.

내 희미한 얼굴만이 외로운 섬처럼  
유리 술잔 위에 떠 있다.

-「섬」 전문

그리움이란 대상에 대한 평명한 마음이 확보된 상태의 정서를 말한다. 그것은 비록 강렬하기는 하지만, 필연적인 내적 상처로 이어지고야 마는 욕망의 형식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어떤 것이다. 그리움은 “램프가 되어 공중에 걸려” 희미한 빛을 내뿜는다. 김광균 시편의 인유(引喩)를 떠올리게 하는 이 작품은, 그 공중에 걸려 있는 서러운 램프가 타들어가고 있는 풍경을 배음(背音)으로 하면서, 화자의 경험적 직접성을 담고 있을 가난한 고독의 형상을 새삼 떠올린다. 그때 “애인들은 등우리를 짓지 않고/한 마리 새도 날아들지 않는다”. 이렇게 ‘그리움’과 ‘가난’은 이가림 초기 시편의 키워드가 되어, 마치 「가을날」에서 “이제 사람들은 집을 짓지 않습니다.”라고 릴케가 노래한 것처럼, 시인으로 하여금 “내 희미한 얼굴만이 외로운 섬처럼/유리 술잔 위에 떠” 있음을 발견하게끔 한다. 그렇게 서럽고 고독하고 희미한 존재론적 결핍으로 가득한 생의 형식을, 시인은 ‘섬’이라는 상관물을 통해 보여준다. 우리가 그의 시편에서 “어떤 내면적 憂愁”<sup>1)</sup>를 발견하는 것도 그 점에서 매우 자연스러운 일일 것이다. 이처럼 이가림 초기 시편을 물들이고 있는 것은 ‘그리움’이나 ‘우수’ 같은 전형적인 낭만적 꿈이다. 그러나 그의 시가 ‘감상(感傷)’으로 빠지지 않는 균형추는, 상처를 과장하지 않고 그것을 치유하고 긴장을 유지하려는 그의 고전적 시선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그의 스승 신석정은 이가림의 첫 시집에서 “피꼬리에 못지 않은 목청으로 그의 가락은 一變할 수 있는 健康性を 속 깊이 지니고 있지 않은가”<sup>2)</sup>라고 말할 수 있었는지도 모른다. 이러한 균형추가 심미적 조형으로 집중화된 것이 바로, 그의 대표작 가운데 하나인 『유리창에 이마를 대고』(창작과비평사, 1981)의 표제작일 것이다.

유리창에 이마를 대고  
모래알 같은 이름 하나 불러본다

1) 민희식, 「불의 꿈」, 이가림, 『빙하기』(민음사, 1973).

2) 신석정, 「또 하나의 소리」, 위의 책.

기어이 끊어낼 수 없는 죄의 태줄을  
 깊은 땅에 묻고 돌아선 날의  
 막막한 별판 끝에 열리는 밤  
 내가 일천 번도 더 입맞춘 별이 있음을  
 이 지상의 사람들은 모르리라  
 날마다 잃었다가 되찾는 눈동자  
 먼 부재(不在)의 저편에서 오는 빛이기에  
 끝내 아무도 볼 수 없으리라  
 어디서 이 투명한 이슬은 오는가  
 얼굴을 가리우는 차가운 입김  
 유리창에 이마를 대고  
 물방울 같은 이름 하나 불러본다

-「유리창에 이마를 대고」 전문

서정시는 근본적으로 시간에 대한 경험 형식으로 씌어진다. 그래서 서정시는 불가 피하게 시간에 대한 경험과 기억의 재구성이라는 양식적 특성을 강하게 띠게 된다. 이가림 시편 역시 자신의 ‘기원(origin)’이라고 부를 수 있는 시간 형식을 기억하고 호명하고 재구성해내는 데 공을 들인다. 시의 화자는 밤 유리창에 이마를 대고 누군가의 이름을 호명하고 재구성한다. 그 이름은 ‘모래알/물방울’ 같은 이름 하나이다. 이때 ‘모래알’과 ‘물방울’은 미소(微小)한 존재라는 점에서는 공통적이지만, 각각 견고함과 순간성을 표상하는 점에서는 차이를 지닌다. 이렇게 영원과 순간을 화자는 동시에 호명하고 있다. 화자가 유리창을 통해 “일천 번도 더 입맞춘 별”을 응시하면서 “날마다 잃었다가 되찾는 눈동자” 곧 “먼 부재(不在)의 저편에서 오는 빛”을 홀로 바라보고 있는 장면은, 정지용 시편과의 상사성(相似性)을 강하게 환기하면서, 그 응시의 힘으로 하여금 다가오는 투명한 이슬을 바라보게끔 한다. 그래서 이 시편은 유리창에 어리는 차가운 입김과 그것을 투과하여 화자의 눈에 들어오는 ‘별빛’과 ‘이슬’을 일차적인 시적 원형으로 잡아내면서, 천상과 지상, 영원과 순간, 낭만적 꿈과 고전적 시선을 동시에 욕망하게 된다. 이러한 균형 감각이 그로 하여금 차가운 현실을 증언하고 역사의 마디를 복원하는 만만찮은 투시력을 견지하게끔 한다.

동풍이 목놓아 소리치는 날  
 빈 창자를 쓰리게 하는 소주 마시며  
 호남선에 매달려 간다 차창 밖 바라보면  
 달려와 미증하는 누우런 안개  
 호롱불의 얼굴들은 왜 떠나지 않는가  
 언제나 버려져 있는 고향땅  
 단 한번 무쇠낫이 빛났을 때에도  
 모든 목숨들은 언문(諺文)으로 울었을 뿐이다  
 논두렁 밭두렁에  
 장삼이사(張三李四)의 아우성처럼 내리는 비  
 캄캄한 들녘 어디선가  
 녹두장군의 발자국 소리 들려온다  
 하늘에게 직소(直訴)하듯 치켜든  
 말없이 젖어 있는 풀들의 머리

-「황토에 내리는 비」 전문

김수영의 「풀」을 연상케 하는 ‘동풍’과 ‘비’ 그리고 ‘풀’의 변증법이 더욱 구체적인 역사의 육체와 만나고 있는 장면이 아닐 수 없다. 먼저 우리는 시인의 고향을 환기하는 여러 기표들 예컨대 ‘호남선’이나 ‘녹두장군’의 역사성에 대해 주목하게 된다. 호남선에 실려가며 바라보게 되는 차창 밖 세계는 언제나 버려져 있는 고향으로 나타난다. 그 땅은 “단 한번 무쇠낫이 빛났을” 순간을 아득하게 보여준다. 그 황토에 내리는 빗줄기는 “장삼이사(張三李四)의 아우성처럼” 캄캄한 들녘을 적시면서, “녹두장군의 발자국 소리”와 함께 화자의 뇌리에 흘러들어 온다. 이때 풀들은 “하늘에게 직소(直訴)하듯” 고개를 치켜들고 있다. 시편 전체를 통해 ‘황토’와 ‘풀’의 색채 대비가 확연하고, 그 안에서 ‘언문’과 ‘직소’라는 민초들의 언어 형식이 도드라지게 나타난다. 이 시편을 위시한 일련의 현실 지향의 작품들은, 그가 얼마나 시를 통해 구체적인 역사와 조우하는가를 선명하게 증언하고 있다.

원래 유년이나 고향을 향한 기억은 인간의 자기동일성에 지속적 영향을 끼치는 가장 원초적인 힘이 된다. 이가람 시편에 나타나는 유년과 고향에 대한 기억 역시

이러한 자기동일성 확인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 그렇듯 그의 시는 일차적으로 창작 주체의 나르시시즘이 그 일차적이고 근본적인 동기로 작용한다. 하지만 그것이 타자들을 포괄하고 타자의 삶에 충격을 주지 못하는 한, 그것은 거울로 이루어진 방 속에 갇힌 것처럼 무한 반사 운동을 하는 것에 불과할 것이다. 따라서 자기동일성에 갇히지 않고, 그것을 타자의 삶에 대한 배려와 관심으로 확장하여 공적 기억의 차원으로 끌어올리는 것은 우수한 서정시의 심층적 동기가 된다. 그 점에서 이가림이 보여준 시적 진화(進化)는 매우 주목할 만한 것이다. 그렇게 자아와 타자가 서로를 껴안고 있는 실례는 아마도 다음 시편일 것이다.

나는 바라본다 슬픈 증인처럼  
 어둠과 망각의 밀창에 잠들 수 없는  
 강한 바람을 향해 싸우는 나날  
 이마에는 그림자 깊게 파이고  
 살면서 부서져가는 것  
 나는 껴안는다 다만 나 자신의 죽음을  
 -「또 하나의 돌」 중에서

슬픈 증인이 되어 “어둠과 망각의 밀창”에서 잠들지 않고 강한 바람을 향해 싸우는 나날을 기억하는 ‘돌’의 형상은, 자신의 죽음을 껴안고 갱생을 소망하는 이의 마음을 담고 있다. 이 시편에 나타난 것은 이른바 ‘요나 콤플렉스’인데, 이를 두고 바슐라르(G. Bachelard)는 모성 곧 부드럽고 따뜻하고 결코 공격받지 않는 편안한 상태로의 원초적 도피 심리라고 말하면서, 그것의 절대적 내면성 혹은 절대적 무의식을 설명한 바 있다. 바슐라르가 말한 ‘요나 콤플렉스’가 따뜻하고 편안한 내면 공간으로의 도피 심리를 말하는 것이라면, 이가림의 그것은 ‘죽음’을 통해 새로운 존재자로 거듭나려는 신생의 욕망을 담고 있어 보다 더 역동적이다. 그렇게 이가림 시편은 죽음 충동을 넘어 새로운 존재자로의 신생을 욕망하는 강한 의지를 보인다. 우리가 읽어왔듯이, 이가림 초기 시편을 표상하고 있는 것은 영원과 순간, 견고함과 부드러움, 낭만적 꿈과 고전적 시선을 통합적으로 갈무리하려는 일관된 지향이다. 그 기막힌 절제와 균형이 그의 시학을 높은 품과 격으로 이끌어 올린 것이다.

### 3. 생활 감각의 구체성과 소통의 심미적 순간성

대상과의 상호 작용을 통한 주체의 정서 발현 과정을 우리는 ‘서정’이라 일컫는다. 물론 시인의 세계가 단순한 자기 몰입이나 자기 도취의 나르시스적 몽환에 그친다면, 우리는 그의 시편들을 통해 한 자연인의 삶은 들여다볼 수 있겠지만 완결된 서정시의 미학을 경험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이가림 시편들은 철저하게 ‘주체’의 시간적 경험으로부터 발원되고 있지만, ‘세계’와 소통하려는 열망을 동시에 내포함으로써 대상의 확장을 통한 신생의 언어를 지향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완결성 높은 미학을 통해 ‘자아’와 ‘세계’가 한 사람의 경험적 언어 속에서 접점을 형성하며 상호 소통하는 것을 충실하게 발견할 수 있다. 그의 제3시집 『순간의 거울』(창작과비평사, 1995)은 이러한 생활 감각의 구체성을 통해 소통의 심미적 순간성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실례일 것이다.

언제부터

이 잉결볼 같은 그리움이

텅 빈 가슴 속에 이글거리기 시작했을까

지난 여름 내내 앓던 몸살

더 이상 견딜 수 없구나

영혼의 가미술에 들끓던 사랑의 힘

깜깜한 골방 안에

가들 수 없구나

나 혼자 부둥켜안고

뒹굴고 또 뒹굴어도

자꾸만 익어가는 어둠을

이젠 알알이 쏟아놓아야 하리

무한히 새파란 심연의 하늘이 두려워



나는 땅을 향해 고개 숙인다  
 온몸을 휩싸고 도는  
 어지러운 층만 이기지 못해  
 나 스스로 꺾질을 부순다

아아, 사랑하는 이여  
 지구가 쪼개지는 소리보다  
 더 아프게  
 내가 깨뜨리는 이 홍보석의 슬픔을  
 그대의 뜰에  
 받아주소서

-「석류」 전문

제5회 정지용문학상을 수상한 「석류」는, 조운의 대표작 「석류(石榴)」와의 연관성을 환기한다. 가령 조운이 ‘석류’를 직접 화자로 삼아 “투박한/나의 얼굴/두툼한/나의 입술//알알이/붉은 뜻을/내가 어이/이르리까//보소라/입아 보소라/빠개젓힌/이 가슴”이라고 노래함으로써 대상을 향한 강렬한 사랑을 노래한 데 대하여, 이가림의 「석류」는 “잉겔볼 같은 그리움”을 석류라는 상관물에 이입하고 있다. 이가림 시편의 인유(引喻) 지향성은 이미 최원식, 윤영천 교수 등에 의해 폭넓게 지적된 바 있는데, 말하자면 정지용, 김광균, 백석, 이용악, 조운, 김수영 등의 시편들과 상호텍스트적으로 이가림 시편들은 깊이 얽혀 있다. 이러한 인유 지향의 상상력은, 시인으로 하여금 우리 근대시의 고전적 정전(正典)들을 창조적으로 섭렵하고 변형하게 함으로써, 우리의 심층적 기억 속에 있는 근원적 언어들과 새로운 조우를 도모케 하는 이점을 지닌다.<sup>3)</sup> 텅 빈 가슴 속에 이글거리는 그리움은 석류의 외양을 따라 ‘몸살’과 ‘사랑의 힘’ 그리고 ‘어둠’으로 이어진다. 그 어둡하고 아픈 사랑의 힘은 속으로부터 강렬한 원심력으로 분출되어 “온몸을 휩싸고 도는/어지러운 층만”으로 변형된다. 그래서 화자는 스스로 꺾질을 부수면서, 아프기만 한 “홍보석의

3) 이러한 인유의 실제와 성취에 대해서는 따로 깊이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그만큼 이가림 시편의 중요한 속성이다.

슬픔”을 노래하게 된다. 여기서 ‘홍보석’의 비유는, 그가 초기에 집중적으로 보여준 견고한 ‘돌’의 미학과 그대로 이어진다. 이처럼 대상에 대한 강렬한 그리움을 통해 주체의 동일성을 확보해가는 이 시편은 이가림 시학의 속성을 잘 드러내 보여준다.

나는 지하철을 사랑한다  
2만 5천 볼트의 전류가 흐르는  
인천행 지하철에 흔들릴 때마다  
2만 5천 볼트의 사랑과  
2만 5천 볼트의 고독이  
언제나 내 안에 안개처럼  
넘실거리기 때문이다

징그러운 발을 감추고  
안 보이는 한 쌍의 촉각을 세운 채  
음습한 곳에 묻혀 시는 벌레들을  
마구 잡아먹는  
한 마리 길다란 지네

그 꿈틀거리는 몸뚱어리 마디마디  
환히 불 밝힌 방 안에서  
학생 공원 선생 군인 회사원  
창녀 수녀 신문팔이 소매치기  
이 땅의 눈물겨운 살붙이들 모두가  
서로 뺨을 맞대고  
서로 어깨를 비벼대고  
서로 밀치고  
서로 부추기고  
서로 껴안으며

즐거운 지옥의 밧줄에 묶여 끌려간다

이리 부딪치고 저리 쓰러지는  
 그 장삼이사(張三李四)의 물결 속에  
 몸을 던져  
 나 또한 즐거이 자맥질한다

너의 살결에  
 나의 살결이 닿고  
 너의 숨결에  
 나의 숨결이 섞이는  
 황홀한 세상

거대한 군중의 파도가  
 물거품의 자취조차 없이  
 나의 파도를 삼킨다

나는 지하철을 사랑한다  
 2만 5천 볼트의 전류가 흐르는  
 인천행 지하철에 흔들릴 때마다  
 2만 5천 볼트의 사랑과  
 2만 5천 볼트의 고독이  
 언제나 내 안에 안개처럼  
 넘실거리기 때문이다

-「2만 5천 볼트의 사랑」 전문

이가림 시편은 지나간 시간에 대한, 그리고 우리가 무심코 흘깃 지나칠 법한 소소한 풍경에 대한 남다른 기억에 두루 의존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이때의 기억이 대부분 아스라한 그리움과 따뜻한 비에 의해 감싸져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된

다. 물론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기억은, 나날의 일상을 규율하는 합리적 운동 형식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고고학자의 시선처럼, 현재의 지층 속에 화석의 형식으로나 있을 법한 과거의 풍경을 재현해내고 그때의 한순간을 구성해내는 어떤 근원적인 힘을 뜻한다. 이가림 시는 이러한 기억의 원리에 의해 충실하게 결속되어 있고, 자기동일성의 감각을 통해 지나간 시간들을 충실하게 재구성해내고 있다. 그 점에서 그의 시는 궁극적으로 서정시가 삶의 구체성과 진정성에서 우러나오는 언어적 감정 양식임을 잘 보여주는 사례로 기억될 것이다. 이 시편도 그러한 실례가 아닐 수 없다.

“2만 5천 볼트의 전류”가 흐르는 인천행 지하철을 화자는 긍정적으로 노래한다. 그 전류는 곧 사랑과 고독의 분량으로 고스란히 전화되어 “2만 5천 볼트의 사랑과/2만 5천 볼트의 고독”으로 화자의 내면을 훑고 지나간다. 비록 그 외관은 “벌레들을/마구 잡아먹는/한 마리 길다란 지네”처럼 보이지만, 지하철 안에는 “학생 공원 선생 군인 회사원/창녀 수녀 신문팔이 소매치기” 등 “이 땅의 눈물겨운 살붙이들”이 서로 뺨을 맞대고 어깨를 비벼대고 밀치고 부추기고 껴안고 있다. “그 장삼이사(張三李四)의 물결” 속에서 화자는 살결과 숨결이 서로 섞이는 황홀한 경험을 치른다. 못 타자들과의 물리적 결속을 가능케 한 “2만 5천 볼트의 전류가 흐르는/인천행 지하철”은 결국 그만큼의 사랑과 고독의 이중성을 물질적으로 경험하게 한다. 비록 고독하지만 그들과의 비애스런 연대를 통해 이가림 시학은 구심과 원심의 충실한 균형을 유지해 온 것이다.

바르비종 마을의 만중 같은  
 저녁 종소리가  
 천도복숭아 빛깔로  
 포구를 물들일 때  
 하루치의 이삭을 주신  
 모르는 분을 위해  
 무릎 꿇어 개펄에 입맞추는  
 간절함이어

거룩하여라

호미 든 아낙네들의 옆모습

-「바지락 줍는 사람들」 전문

바르비종 마을의 ‘민중’처럼 화자의 마음 속에는 저녁 종소리가 은은하게 번져온다. 그 종소리를 따라 화자의 시선은 생활적 구체성을 온몸으로 드러내는 타자들을 향한다. 이삭을 줍는 것이 아니라 바지락을 줍는 포구 아낙네들의 모습에는 “하루치의 이삭을 주신/모르는 분”을 향한 기도가 간절하게 울려 퍼진다. 그 순간 “호미 든 아낙네들의 옆모습”은 ‘숭고(the sublime)’의 형상에 가까워진다. 이렇게 비애와 연민을 ‘숭고’를 향한 열정으로 승화시키는 낭만적 꿈이 그의 시적 욕망 체계 안에 생생하게 살아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꿈은 견고한 고전적 시선에 의해 감싸임으로써 사물에의 따듯한 연민과 서늘한 응시가 동시에 가능해지는 것이다. 그래서 그의 시편 속에서 “꼭진하나 처연치 않고, 처연치 않으나 절절하고, 절절하나 무겁지 않은 시적 분위기”<sup>4)</sup>를 보이게 된다.

원초적으로 이가림 시편은 세계내적 존재로서의 인간의 삶이 가지는 소외와 슬픔 같은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하지만 그러한 소외감과 슬픔을 그는 우울한 비관주의로 노래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는 궁극적 자기 긍정으로 전화(轉化)할 수 있는 내적 계기들을 시 안에 풍부하게 만들어놓는다. 예컨대 그것은, 사물들에 대한 외경(畏敬)과 생의 보편적 형식에 대한 믿음 같은 것들을 통해 만들어진다. 그래서 그의 시는, 때로는 한가로운 오솔길에 피어 있는 나무 한 그루나 꽃 한 송이에 대한 한없는 심미적 동경에 비유될 만한 것이다. 그만큼 그의 시편들은 “끝내 말하지 못할 것이야말로/영원히 숨쉬는 것”(『투병통신』)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그것은 한 편 한 편의 시편을 뜻하는 ‘Dichtung’이 아니라, 항구적으로 발화되지 않는 가장 근원적인 시 곧 ‘Gedicht’가 된다. 이가림 시편의 궁극은 그렇게 미완의 발화인 “영원히 숨쉬는 것”으로 남아 있는 것을 지향하게 된다. 이 모든 것이 생활 감각의 구체성과 소통의 심미적 순간성을 잘 보여주는 실례라 할 것이다.

4) 장경렬, 『젓이들기에서 뛰어넘기로』, 『응시와 성찰』(문학과지성사, 2008).

#### 4. 인간 존재의 가장 근원적인 심층에 대한 응시

비유하건대 서정시를 쓰는 것은 두 장의 거울을 만들어내는 일과 크게 다르지 않다. 보통 사람들은 자신의 얼굴을 비추는 거울을 보면서 스스로 감격하지만, 성숙한 서정시는 그 반대편에 또 한 장의 거울을 준비하여 자신의 일그러진 뒷모습을 응시할 줄 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그 뒷모습을 안타까움과 정직한 투명성으로 바라볼 줄 아는 자기 성찰의 품일 것이다. 뒷모습을 은폐하지 않고 그것을 드러내어 자신의 온몸으로 견뎌내는 일, 곧 자기도 모르게 자신의 내부에 확산되어가는 속물 의식에 대한 반성적 의식이야말로 서정시의 가장 위대하고 고유한 몫일 것이다. 이가림은 사물들의 순간의 움직임을 묘사하면서도 거기서 자신의 뒷모습을 확인한다. 그러한 세계를 가득 담고 있는 것이 바로 『내 마음의 협계열차』(시와 시학, 2000)이다.

내가 문득

보조개 이쁜 누이를 바라보듯

꽃 한 송이 바라보니

새하얀 빛깔로

웃는다

가늘게 떠는

그 웃음소리에 놀라

잠 깬 이슬들이

내게 말을 걸어

이름을 묻는다

난 눈길 없는 눈길로

바라보는 돌,

그대들이 바라보면

소리 없는 소리로

## 웃는 돌

## -「순간의 거울·7-상응」 전문

보들레르의 명편 「상응(相應)」은 “자연은 살아 있는 기둥들로부터/이따금 어렵곳 한 말들이 새어나오는 하나의 신전/사람은 다정한 눈길로 그를 바라보는/상징의 숲 속을 가로지른다.”라고 노래한다. 어둡고 깊은 조화 속에 향기와 색채와 음향이 서로 화답하는 것처럼, 시인도 무한히 퍼져나가는 자연 사물들의 상징적 파문들을 힘껏 노래한다. 반면 이가림 시인은 ‘상응’이라는 표제 아래 우리가 망각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복원의 꿈을 담는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의 속도와 새것을 향한 짓눌림에 의해 망각하고 있었던 시적 원리이자 속성은 무엇일까. 우리는 그것을, 서정시의 본래적 존재 근거라 할 수 있는, 인간의 실존적 운명의 표정을 날날이 형상화함으로써 구현하는 근원에 대한 관심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가림 시인의 시선은 바로 그곳을 향한다. 그리고 이러한 작업이 그에게는 ‘시’가 해야 할 양도할 수 없는 일이기도 한 것이다. 화자는 보조개가 예쁜 누이를 바라보듯 꽃 한 송이를 바라보다. 그 한 꽃송이에 담겨 있는 새하얀 빛깔과 가늘게 떠는 웃음소리는 이슬을 깨우고 그 이슬로 하여금 ‘나’에게 말을 걸게 한다. 이 말건넌의 형상은 꽃과 화자의 상응이요, “눈길 없는 눈길로/바라보는 돌”과 “그대들이 바라보면/소리 없는 소리로/웃는 돌”의 상응이기도 하다. 이처럼 우리의 존재 가장 깊은 곳에 엄연히 가라앉아 있는 눈길과 소리의 향연이 ‘상응’이라는 순간의 거울로 펼쳐지고 있다. 이때 시인은 “한 순간/눈길과 눈길/빛의 끈으로 묶여져/별 하나 피어나게”(『순간의 거울·4』) 하는 역동성을 통해 스스로의 실존적 묶음을 묻고 있다. 따라서 사물에 대한 꿰뚫힌 묘사만 있는 것처럼 보이는 시편들도 화자 스스로 돌아보는 반성적 사유와 깊이 매개됨으로써 서정시의 자기 탐구적 의미를 증폭시킨다. 이러한 자기 탐색 의지가 ‘마음’의 집중성으로 나아간다.

측백나무 울타리가 있는  
정거장에서  
장난감 같은  
내 철없는 험케일차는

떠난다

너의 간이역이  
끊어진 철교 그 너머  
아스라한 은하수 기슭에  
있다 할지라도  
바람 속에 말달리는 마음  
어찌지 못해  
열편 기적을 올리고  
또 올린다

바다가 노을을 삼키고  
노을이 바다를 삼킨  
세계의 끝  
그 영원 속으로  
마구 내달린다

출발하자마자  
돌이킬 수 없는 빨에  
치박히고 마는  
내 철없는 협궤열차

오늘도  
측백나무 울타리가 있는  
정거장에서  
한 량 가득 그리움 싣고  
떠난다

-「내 마음의 협궤열차」 전문



화자는 인천에서 수원으로 다녔을, 이제는 유물이 되어버린 ‘협궤열차’라는 매우 구체적 사물을 ‘마음’의 은유적 매재(媒材)로 활용한다. 아마도 화자가 경험했음직한 “측백나무 울타리가 있는/정거장”은 화자의 마음을 환기하는 철없는 협궤열차를 감싸고 있다. 그렇게 “너의 간이역”에 도달하기 위해 화자는 “끊어진 철교 그 너머”라도 “아스라한 은하수 기슭”이라도 기적을 울리며 달리고 있다. 그 달음질의 영원성이 바로 화자의 존재 형식이 된다. 비록 출발하자마자 뺄어 처박힐지라도 “내 철없는 협궤열차”는 가득 그리움을 싣고 어디론가 지속적으로 떠나가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그리움을 싣고 언제든 떠나는 마음은, 협궤열차의 기우뚱한 느낌의 존재론으로 수렴되고 있다.

시적 상상력의 작용이나 역할을 존재 생성의 내면적인 힘으로 본 사람은 바슐라르이다. 그는 인간 내부에 있는 존재 생성의 힘을 상상력이라 규정하고, 덧붙여 상상한다는 것은 현실을 떠나는 것이지만, 새로운 현실을 향해 돌진하는 것으로 봄으로써 상상력의 역동적 가능성을 밝혀내었다. 『내 마음의 협궤열차』는 그러한 상상력의 역동적 모험으로 가득한 결과이다. 그래서 김수이는 “이 시집을 감싸고 있는 정서 구조는 ‘시간의 모래’로 마모되어가는 삶의 누추함과 쓸쓸함으로부터 연유하는 고독의 감정과 그 삶의 누추함에 대항하여 투쟁하는 인고의 의지가 만들어내는 긴장 관계”<sup>5)</sup>라고 하였고, 엄경희는 “도취와 각성이라는 두 축을 통해 생에 대한 총체적 사유를 가능케 해주는 미적 산물”<sup>6)</sup>이라고 명명했던 것일 터이다. 이가림 후기 시편들은 인간의 의지적 측면을 중심으로 하여, 낭만과 고전의 통합을 지향하면서, 인간 존재의 가장 근원적인 심층을 응시하고 있는 것이다.

## 5. 언어와 현실과 우주가 길항적으로 전개된 세계

이가림의 시적 키워드를 사랑과 고독으로 읽는 것은 매우 일반화되어 있다. 그 역시 “시쓰기라고 하는 것은 존재의 근원적인 결핍, 존재의 노스텔지어, 존재의 근원적 향수를 어찌지 못해 그것을 채우려고 하는 몸부림 속에서 태어나는 것이 아닌가

5) 김수이, 『시간의 모래에 대응하는 기억의 힘』, 『포에지』 2001년 봄호.

6) 엄경희, 『불멸과 소멸의 이중주』, 『작가들』 2001년 여름호.

생각”<sup>7)</sup>한다고 고백한 바 있다. 또한 그는 “실로 희망이 있다고도 할 수 있고 희망이 없다고도 할 수 있는 간절한 투병통신(投瓶通信)”<sup>8)</sup>을 말한 바 있다. 그만큼 그의 시편들은 결핍과 희망 사이를 진자운동 한다. 그가 그의 대표 저서에서 “실존의 고독을 응시하는 깊은 통찰력”을 자코메티와 사르트르에서 읽고, “민중 발견의 서곡”을 제리코와 아라공에서 읽은 것에서 볼 수 있듯이, 그의 미학적 패러다임은 매우 넓다.<sup>9)</sup> 그래서 그의 시편은 어떤 선형적 진화 과정을 보이는 게 아니고, 그 대립적 국면들이 통합적 육체를 구성하고 있는 것이다. 언젠가 이은봉은 이가림의 시적 변모 과정을 ‘낭만적 모더니즘’ → ‘낭만적 리얼리즘’ → ‘현상학적 직관의 세계’라고 풀이한 적이 있다.<sup>10)</sup> 하지만 오히려 그의 시세계는 ‘언어/현실/우주’가 통합되어 처음부터 길항적으로 전개되어왔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이렇게 저렇게  
저렇게 이렇게  
육십 년도 더 넘게 끌고 온  
꽤매고 기운 형꼴 투성이의  
내 슬픈 부대자루를  
해지는 고갯마루에 잠시 부러놓고  
하늘에 밑줄 친 듯 그려진 운평선(雲平線)에  
망연히 한눈 팔고 있노라니  
예전에 어디선가 본 듯한  
허연 수연 휘날리는 조각구름 하나가  
불현듯 다가와  
축 처진 내 어깨를 두드리며 타이르네

“그 동안 많이도 수고했네만  
네 부대자루가 닳아가 될 때까지

7) 좌담 『별을 향해 가는 느낌의 열정』, 『시를 사랑하는 사람들』 2008년 3-4월호.

8) 이가림, 『투병통신에 가는 희망』, 『유심』 2008년 봄호.

9) 이가림, 『미술과 문학의 만남』, 월간미술, 2000.

10) 이은봉, 『영원한 삶과 찰나의 죽음』, 『문학과 창작』 2003년 12월호.

조금만 더 끌고 가보게  
 더는 나아갈 수 없는  
 천길 낭떠러지  
 그 미완성의 정점(頂点) 끝에 다다를 것이니  
 그 때 푸른 심연의 바다 한 가운데  
 서슴없이 뛰어내리게”  
 이렇게 저렇게  
 저렇게 이렇게  
 육십 년도 더 넘게 끌고 온  
 께매고 기운 형겼 투성이의  
 내 슬픈 부대자루,  
 다 닳아진 한 조각 걸레가 되기까지  
 해 떨어지기 전  
 생의 마루바닥을  
 무릎 꿇고 더 닦아야 하네

-「귀가, 내 가장 먼 여행·2」 전문<sup>11)</sup>

이순의 나이를 지나 이렇게 저렇게 끌고 온 자신의 육신은 어느새 “껴매고 기운 형겼 투성이의/내 슬픈 부대자루”로 비유된다. 해지는 고갯마루에서 부대자루를 잠시 부러놓고 있으니, 화자의 마음 속에는 그 수고로운 육신이 “넉마가 될 때까지/조금만 더 끌고” 가보자는 의지가 살아난다. 비록 “더는 나아갈 수 없는/천길 낭떠러지”이지만 그 미완성의 정점 끝에 다다를 때까지 화자의 이렇게 저렇게 살아온 삶은 지속될 것이고, 그것은 궁극적으로 “다 닳아진 한 조각 걸레”가 될 것이다. 하지만 그 황혼녘의 아름다움 속에서 “해 떨어지기 전/생의 마루바닥을/무릎 꿇고 더 닦아야” 하는 마음을 화자는 헤아리게 된다. 이러한 황혼의 ‘귀가’에 대하여 시인은 일찍이 첫 시집에서 “노란 가랑잎들 마지막 다한 흐느낌으로 안녕히, 안녕히, 손짓하는 때, 살의 옷 벗어놓고 빈 들 위를 떠가는 가을 잠자리의 歸家”(『황혼』, 『빙하기』)라

11) 『불교문예』 2006년 가을호.

고 아름다운 삽화를 그려놓은 바 있다. 그것이 40년 가까운 세월을 흘러 새롭게 환생한 것이다. 그 가장 먼 여행을 시인은 수행하고 있는데, 이가림 시인에게 여행자는 가장 먼 귀로에 들어선 이의 모습을 띠고 있는 것이다.

어린 날  
물수제비뜨기의  
가뭇없이 가라앉은  
조약돌인 듯

후미진 마을의 오두막  
홀로 조는  
등잔불인 듯

깜깜한 밤  
으악새 우거진 골에  
떨어진  
한 조각 운석인 듯

모래 이불 밑에  
물래 숨은  
한 마리 모래무치인 듯

촉촉한 흙에  
반쯤 문힌  
보리씨인 듯

나  
그렇게  
없어진 있음으로

조용히

지워지고 싶어

-『잊혀질 권리』 전문<sup>12)</sup>

시인은 자신이 걸어온 오랜 시간을 여러 비유를 통해 성찰하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마지막 권리로써의 ‘잊혀짐’에 대해 토로한다. 하지만 우리는 오히려 시인의 나직한 음성 안에서 그가 걸어온 삶의 자취를 뚜렷하게 발견하게 된다. 시인의 기억은 “인 듯”이라는 평행법에 의해 자신의 존재론적 등가물들을 호명하고 각인하고 있는데, 그 사물들은 한때 가장 강렬한 감각으로 존재했다가 이제는 소멸 직전에 있거나 소멸해버린 것들이다. 가령 어린 시절 물수제비 하다가 물 속으로 사라져버린 ‘조약돌’, 어둡고 후미진 마을의 오두막을 홀로 지키던 쇠잔한 ‘등잔불’, 캄캄한 밤하늘을 한순간 밝히다가 떨어져버린 ‘운석’, 몰래 숨어버린 ‘모래무치’, 흙에 묻힌 ‘보리씨’ 등은 한결같이 가라앉거나 줄거나 떨어지거나 숨어버리거나 묻혀버린 존재들이다. 시인은 마치 그들처럼 “나/그렇게/없어진 있음으로” 조용히 지워지고 싶다는 소망을 피력한다. 이때 우리는 시인이 말하는 ‘잊혀질 권리’야말로 인간의 가장 고귀한 실존적 특권임에 상도하게 된다. 그와 동시에 시인의 생애가 깨끗한 ‘조약돌’이었고, 어둠을 밝히던 ‘등잔불’이거나 ‘운석’이었고, 생명을 환기하는 ‘모래무치’나 ‘보리씨’의 생애였음을 알게 된다. 이제는 그 생애를 뒤로 하고 ‘잊혀질 권리’를 소망하는 시인의 역설은, 그만큼 오랜 시간 시인으로서의 고단한 여정을 지나온 자신의 존재론적 한계와 함께 소중하게 남겨진 시간을 전존재적으로 고백하는 언어인 셈이다. 이롭담고 애잔하고 글썽이는 진정성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가림의 오롯하고도 고고한 음역(音域)이 아닐 수 없다. 그래서 오히려 그는 시인으로서의 ‘잊혀지지 않을 권리’를 오래도록 누려갈 것이다.

최근 우리는 초월적이고 영적인 실재보다는 물리적이고 감각적인 표상에 가치를 부여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흔히 디지털 시대라고 명명되는 이 같은 사회적 기율은 우리의 육체와 정신 속에 깊숙이 내면화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시대는 개인적 삶의 오랜 정체성을 파괴하고 동시에 전통적 가치에 대한 혼란을 드러내게 된다.

12) 『현대시학』 2014.5.

이때 이러한 가치의 균열을 치유하고 극복하려는 시적 전망(vision)이 우리에게 필요하게 되는데, 이가림 시는 바로 이러한 치유의 언어로 구성되어 있으며, 나아가 비애와 연민의 힘을 내장한 구도자의 시선으로 짜여 있다. 그것은 이를테면 궁극적이고 근원적인 일종의 기원을 추구하는 언어일 것인데, 그 점에서 감각적 실재를 넘어서면서 영혼을 충일하게 하려는 이가림의 시적 욕망은, 그의 시를 발원케 하는 궁극적인 원형이 아닐 수 없다. 이가림 시의 깊이와 너비는 이러한 속성에서 발원하여 완성되어간 세계였던 것이다. 그렇게 활달한 낭만적 꿈과 견고한 고전적 시선의 협주를 남긴 이가림 시는 우리 시단의 중요한 범례(範例)로 깊이 기억될 것이다.



## ■ 참고문헌

- 곽광수, 『가스통 바슐라르』, 민음사, 1995.
- 곽광수·김현, 『바슐라르 연구』, 민음사, 1976.
- 김수이, 『시간의 마모에 대응하는 기억의 힘』, 『포에지』 2001년 봄호.
- 김우창, 『공핍한 시대의 시인』, 민음사, 1987.
- 김종길, 『시에 대하여』, 민음사, 1986.
- 김중철, 『시와 역사적 상상력』, 문학과지성사, 1978.
- 김준오, 『시론』, 삼지원, 1999.
- 박이문, 『예술철학』, 문학과지성사, 1983.
- 엄경희, 『불멸과 소멸의 이중주』, 『작가들』 2001년 여름호.
- 유중호, 『문학이란 무엇인가』, 민음사, 1989.
- \_\_\_\_\_, 『침묵의 파문』, 창작과비평사, 2002.
- \_\_\_\_\_, 『근대시의 모더니티와 종교적 상상력』, 소명출판, 2008.
- \_\_\_\_\_, 『움직이는 기억의 풍경들』, 문학수첩, 2008.
- 이가림, 『방하기』, 민음사, 1973.
- \_\_\_\_\_, 『유리창에 이마를 대고』, 창작과비평사, 1981.
- \_\_\_\_\_, 『슬픈 반도』, 예전사, 1989.
- \_\_\_\_\_, 『순간의 거울』, 창작과비평사, 1995.
- \_\_\_\_\_, 『내 마음의 협계열차』, 시와 시학, 2000.
- \_\_\_\_\_, 『미술과 문학의 만남』, 월간미술, 2000.
- \_\_\_\_\_, 『투병통신에 거는 희망』, 『유심』 2008년 봄호.
- \_\_\_\_\_, 『잊혀질 권리』, 시와 시학, 2018.
- 이명섭 편, 『세계문학비평용어사전』, 을유문화사, 1985.
- 이상섭, 『문학비평용어사전』, 민음사, 1992.
- 이승훈, 『시론』, 고려원, 1988.
- 이은봉, 『영원한 삶과 찰나의 죽음』, 『문학과 창작』 2003년 12월호.
- 장경렬, 『응시와 성찰』, 문학과지성사, 2008.
- 최유찬, 『문예사조의 이해』, 실천문학사, 1995.
- 디이터 람프, 장영태 옮김, 『서정시: 이론과 역사』, 문학과지성사, 1994.
- 메취, 이춘길 옮김, 『리얼리즘 미학의 기초이론』, 한길사, 1985.
- 빌헬름 보링거, 권원순 옮김, 『추상과 감정이입』, 계명대학교출판부, 1982.
- 자네트 윌프, 이성훈 외 옮김, 『예술의 사회적 생산』, 한마당, 1986.
- 질베르 뒤랑, 진형준 옮김, 『상징적 상상력』, 문학과지성사, 1990.

## An Analytic Study of Lee, Ga-rim's poems

Yoo sung-ho\*

Consisted of symphony between classic perspective and romantic dream, Lee, Ga-rim's poems show the consistency of being written under the sense of balance by holding back a slant toward a certain side. He is a poet of completeness with a few outstanding poems describing his own solid signs raising the density of each one of his poems to the maximum. His first poem book, 'Glacial Epoch' shows the depth of silence and contemplation of youth. In the book, he expresses his peculiar romantic dream firmly holding anger and wounds, tear and fear. However, he consistently desires heaven and earth, eternity and moment and classic perspective and romantic dream. This sense of balance has made him possible to maintain the penetrative power of testifying the harsh reality and restoring joints of history. His later poems stare at the most basic depths of human being centered at the aspects of human will. This restraint and balance has pulled his poetics up with dignity. After all, the significance of Lee, Ga-rim's poetry in the history of Korean literature lies in that he has raised the aesthetical status of Korean poetry by balancing romanticity of melancholy and longing, and classic perspective of penetrating reality and restraining.

Keywords : romanticity, classic perspective, penetrating reality, restraining,  
sense of balance

---

\* Hanyang university